

# 조선중기 일상복의 구조와 구성

— 16·17C 출토복식 중심 —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전임강사 장인우

## 目 次

- |                            |                  |
|----------------------------|------------------|
| I. 서론                      | V. 조선중기 복식의 변화체계 |
| II. 출토복식의 분포와 의미           | VI. 결론           |
| III. 조선중기 일상복의 종류와<br>그 특징 |                  |
| IV. 출토복식에 나타난 구조와 구성       |                  |

## I. 서론

땅 속에서 발굴되는 고대의 옷으로써 출토복식(出土服飾)은 상장례복식(喪葬禮服飾) 가운데 염습의(殮襲衣)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출토복식은 각 가문의 족보에 의하여 피장자(被葬子)의 생·졸연대(生·卒年代)를 알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16·17세기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 의복이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가운데 하나라 할 때 출토복식이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것은 당시 사회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출토지가 전국에 분포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장자 대부분이 지방반가로서 일반인에 해당된다는 것은 당시 출토복식이 그 만큼 보편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거 염습의란 죽음을 맞이하여 인간이 마지막으로 착용하는 복식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주검을 감싸는 죽은자의 옷, 그 이상의 의미를 띄고 있다. 즉 인간이 죽음을 통하여 이

승에서 저승으로 떠날 때 착용하는 의복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출토복식의 성격을 통하여 내세관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의 이해는 곧 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출토복식은 복식사는 물론 과거 민속과 정신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그 근거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출토복식 연구는 발굴보고서<sup>1)</sup>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각 출토지 사이의 의복별 변화·분석 연구는 의복별 혹은 구성요소를 중심<sup>2)</sup>으로 이루어질 뿐 특정 의복의 형성(形成) 및 소멸(消滅) 혹은 변형(變形)하는 단계적(段階的)·종적(縱的)·횡적(橫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편적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6·17세기 출토복식의 특징을 통하여 조선중기 일반복식의 복식사적 위치(位置)와 의미(意味)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시대가 가장 앞선 실물자료가운데 하나인 출토복식

을 통하여 조선중기 일상복의 체계를 살펴 일반 복식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토복식은 그 피장자의 생·졸연대와 신분·성(性)에 의한 착용의복의 종류와 시기를 알 수 있어 당시의 착용의복의 종류변화는 물론 당시 의복의 색상·크기·구성방법을 통한 봉재발달에 대한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자료가 된다. 연구의 자료와 방법은 당시 의복의 고고학적 연구를 위한 실물자료와 사적고찰(史的考察)을 위한 15~17세기의 예서(禮書)를 대상으로 한다. 실물자료는 충북대학교(忠北大學校) 박물관(博物館) 소장 출토복식 중 16·17세기 포(袍)와 저고리를 통하여 그 종류와 유형 및 구성요소를 실측(實測)·분석(分析)하여 의복간의 상호관련성(相互關聯性)을 살펴보았다.

## II. 출토복식의 분포와 의미

출토복식의 출토지와 피장자의 생·졸연대에 의한 의복의 시대별·지역별 분포를 알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그 변천을 이해할 수 있다.

### 1. 출토복식의 분포

출토복식은 저고리류와 창의·직령·첩리·단령·바지·도포·심의·답호·중치막·구의·액주음·치마·단속곳·속바지등이 <표 1>과 같이 다양한 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의복종류가 다양한 것은 출토복식이 당시의 일반복식임을 뜻한다고 유송옥·고복남은 말하고 있다.

#### 1) 시대적 분포

출토복식의 시대적 분포는 피장자의 생·졸연대를 1차 자료인 각 발굴보고서와 재확인에 의하여 <표 2>와 같다. 이에 의한 출토지의 시기별 분포는 15세기에 홍계강·전주이씨의 서원군·문양군 등 3건과 졸년이 16세기 이내인 정응두·경주이씨·청주한씨·안산김씨·동래정씨·안동김씨·순천김씨·김위·벽진이씨·장흥임씨·김덕령장군 등 9건, 그리고 생·졸연대(生·沒年代)가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진 것으로 양천허씨·전주이씨·태안군·전주이씨·전 박장군·구례손씨·진주하씨·문익신 등 7건, 그리고 추정연대가 17

- 1) 金東旭·高福男, '重要民俗資料(服飾)',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75호", 文化財管理局, 1975.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的 研究', "服飾"2호, 1978.
- 金東旭·劉頌玉, '廣洲李氏衣服一貫遺物',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80號", 文化財管理局, 1979.  
'忠北槐山郡金緯墓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81號", 文化財管理局, 1980.  
'忠北淸原郡傳구례손씨묘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82號", 文化財管理局, 1980.  
'忠北淸原郡傳朴將軍墓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第83號", 文化財管理局, 1980.
- 金東旭·張仁又, '壬亂前後 全州李氏墓 出土遺衣',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考(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8.
- 柳喜卿·金美子, '出土服飾', "晉洲河氏墓出土文獻과 服飾調查報告書", 건돌바우박물관, 1991.
- 沈富子·全惠淑, '文益新墓의 出土服飾', "服飾"10호, 1986.
- 高富子,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 遺物 小考', 檀國大學校 民俗博物館, 1994.
-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 研究', "世宗大學校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廣洲郡 突馬面 朽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檀國大學校 民俗博物館, 1993.
- 윤세영·김우림·김상덕, '전주이씨 서원군 묘역 발굴조사보고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한국토지개발공사, 1992.
- 윤세영·김우림, '전주이씨 태안군묘 발굴조사보고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한국토지개발공사, 1992.
- 2) 金東旭, '任亂前後 出土服飾', "任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忠北大學校 博物館報告 第8號, 1983.
- 柳喜卿, '저고리와 친의류(衣類)',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金文子, '朝鮮時代 저고리 것에 대한 研究', "服飾"5號, 1983.
- 白錦鉉, '옷깃과 옷설의 形態變化에 대한 研究', "服飾"6號, 1983.

<표 1> 출토지별 유물의 현황

	추정연대	출토지역	저고리	창의의	창의의	침리	단량	직령	바지	도포	심의	담호	중치막	구의	애주음	치마	속곳류	요
홍계강문양군	1450추정	경기도	3		1	5	3	1				2			2	4	3	
정응두경주이씨	1502~1572 중종~선조	경기도	16		2	23		2				7			1	5	1	
청주한씨					6	1			1							4		
안산김씨	~1579사망	경기도	1				1	1							3	6	4	
동래정씨	~1583	전라북도			1											3	2	
양천허씨	1630~1660	경기도												1		2		1
태안군	임란중	경기도			1	1		?										
홍우협	1655~1691	경기도	5		28				4	1								
홍진종	1649~1702			9					3		1	1	1					
김덕원												1	1				8	
안동김씨	1541~1695	충청도	3		2				1							3	2	
순천김씨	1537~1594	충청도	4		1	2			2							3		
김위	임란전후	충청도	2	5	1	3	1	1										3
전주이씨	임란전후	충청도			1		1									3	4	
전박장군	임란전후	충청도	13	2	2		1		1	1				1		3		
구례손씨	1576~1626	충청도	4	1	1				1							1	1	
벽진이씨	~1585	경상북도					1	1							4		2	
진주하씨	17세기 전후	경상북도		1	4				3							2	14	2
문익신	1556~1645	경상남도	3		2				1								2	
울산이씨	1610~1666	경상남도														2		
홍극여	1670사망	경상북도							1			1						
장홍임씨	1590년대	전라남도	2		1				2									
김덕령	1567~1598	전라남도	1		4				1									
총계									22			3	2	6	51	41		

세기인 것으로 홍우협·홍진종·김덕원·원주원씨(안동김씨 중 김대경의 처) 4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출토복식의 추정연대는 15세기부터 17세기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한 출토복식의 시기별 의복분포를 살펴보면 장의·담호는 전시기에서 나타나는 반면 침리·액주음은 16세기중반이전으로, 창의·도포는 17세기중반이후로 의복에 따라 출토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유사 시기에 있어서 의복종류와 형태가 지역에 관계없이 유사한 현상은 출토복식이 당시에 착용하던 일반복식임을 뜻한다. 또한 16세기후반부터 17세기전반에 의복의 종류가 모두 공존하는 것은 이 시기가 조선의 착용 의복이 변화·교차하는 시기임을 말한다.

2) 지역적 분포

출토복식(出土服飾)의 지역적 분포를 <표 2>에서 살펴보면 경기도에 홍계강·전주이씨·서원군 전주이씨·문양군·정응두·경주이씨·청주한씨·안산김씨·이동부인·동래정씨·양천 허씨·전주이씨·태안군·홍우협·홍진종·김덕원 등 16 곳, 충청도에 안동김씨(김침 원주원씨 김성립) 김위·순천김씨·구례손씨·전 박장군 등 7 곳, 경상도에 벽진이씨·진주하씨·문익신·울산이씨·홍극여의 것 등 5 곳, 전라도에 장홍임씨·김덕령 2 곳으로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순이다.<그림 1>참조

또한 추정연대에 따른 지역의 분포는 16세기중반 이전에는 경기도, 16세기중반부터 17세기중반 이전에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17세기중반이후는 경기도와 충청도로 그 분포가 변화됨을

〈표 2〉 출토지 주인공의 생존연대표

지방 출토지		추정년도			
		1400	1500	1600	1700
경 기 도	홍계강		-----		
	전주이씨 서원군	←-----→			
	전주이씨 문양군	←-----→			
	전용두		←-----→		
	과천출토 경주이씨		-----		
	광주이씨 이언웅 및		-----		
	청주한씨			*	
	안산김씨			*	
	(태안군의 숙부인)			*	
	이동부인 동래정씨			←-----→	
	양천허씨			-----	
	전주이씨 태안군			-----	
	홍우협				←-----→
	홍진중				←-----→
김덕원				←-----→	
충 청 도	안동김씨 김침			←-----→	
	순천김씨		←-----→		
	김성립(안동김씨)		←-----→		
	김위		*		
	전주이씨			-----	
	청원 전박장군			-----	
	구례손씨			←-----→	
	원주원씨(김대경처)				←-----→
경 상 도	벽진이씨			*	
	진주하씨			-----	
	문의신			←-----→	
	울산이씨			←-----→	
	홍극여				*
전 라 도	장흥임씨			-----	
	김덕령장군		←-----→		

참고 ←-----→ : 출생·사망연도  
 ----- : 출생·사망연도 추정  
 \* : 사망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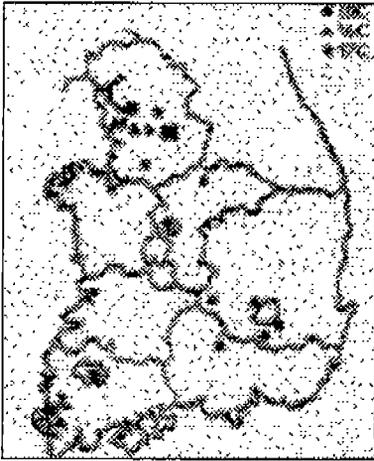
〈표 3〉 출토복식의 시기별 의복분포

	저고리	창 의	직령포	철 리	단 령	바 지	도 포	심 의	답 호	증치막	구 의	액주음	치 마	속곳류
16세기전반 이전	○		○	○	○	○			○			○	○	○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	○	○	○	○	○	○		○		○	○	○	○
17세기 후반 이후	○	○	○			○	○	○	○	○	○		○	○

알 수 있다. 이는 상장례시행이 경기에서 비롯하여 전국적인 확산에 이어 다시 경기도와 충청도 중심으로 시행되었음과 16세기후반부터 17세기전반이 그 절정시기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자는 시행중심의 기호화과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

으며, 후자는 예서의 편찬 시기와의 일치할 뿐<sup>3)</sup> 아니라 각 예서에 나타난 의복명칭의 변화와 출토복식의 종류의 시기별 변화가 거의 일치하는 것 모두 당시 예서가 의례시행의 지침서이었음을 반영한다.

3) 장인우·이준계, '15~17세기 예서에 나타난 염습의와 그 의미' "한국복식학회지" 제25호, 1995.



〈그림 1〉  
출토지의 전국  
분포

## 2. 16·17세기 시대적 배경

조선왕조는 왕조교체의 정치명분과 유교적 왕조경영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법전적 의미의 의례서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sup>4)5)</sup>와 『경국대전(經國大典)』<sup>6)</sup>을 편찬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선중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집권세력<sup>7)</sup>으로 등장한 사림은 사회적으로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가례서를 편찬하였다. 더욱이 임란전후 의례를 시행하던 독예지사의 감소<sup>8)</sup>도 많은 가례서 편찬의 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예서들은 예의 근거뿐 아니라 집권세력에 의한 시행력을 지남에 따라 유교의 예를 생활관습의 성격<sup>9)</sup>으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사회의 생활방식을 불교

(佛敎)와 민간 신앙적(民間信仰的) 차원에서 유교적으로 전환<sup>10)</sup>시켰다.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시행한 토지사유화는 경제적으로 대지주(大地主)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지주층(中小地主層)에까지 향촌사회(鄉村社會)에서 그 지배력을 지닐 수 있게 하였으며<sup>11)</sup>, 이를 통하여 양반층은 경제적으로 이전의 수직적 군신관계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입지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배계층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조선사회는 이러한 일반인 상부의 경제력 확대 위에 15·16세기 집약농업기술(集約農業技術)의 발달이 가져온 잉여산물의 물물교환에 의한 시장경제의 발달은 농민의 지위를 농노에서 소농민으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경제력에 의한 농민 지위의 향상은 소비계층(消費階層)의 확대로서 사림에 의한 일반계층의 상부(上部)에 이어 하부계층(下部)의 양적(量的) 증대로 볼 수 있다. 출토 복식에 나타나는 의복종류의 다양화현상은 경제력을 지닌 일반 서인(庶人)이나 농민의 의복인 일반복식(一般服飾)에서의 변화와 발달을 뜻한다.

## 3. 죽음에 대한 이해와 복식

한국인의 존재세계에는 이승과 저승의 두세계가 있다. 여기서 이승이란 지금·여기<sup>12)</sup>로 구체적 생활의 현실이고, 저승이란 이곳이 아닌 다른 저곳<sup>13)14)</sup>으로 관념의 현실로 죽음이후의 세계이다.

4) 高英津, 『朝鮮中期 禮說과 禮書』,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p. 17, 1992.

5) 李範稷, “朝鮮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p. 377, 1991.

6) 高英津, 앞글, p.p. 17~70.

7) 李泰鎮,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p. 221, 1990.

8) 高영진, “16세기말 사례서의 성립과 예학의 발달”,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 456, 1991

9) 高英津, “16세기 후반 喪制에서의 發展과 그 意義”, 『奎章閣』, p. 30, 1991.

10) 李範稷, 앞책, p.p. 377~397.

11) 李泰鎮, 앞책, p. 172.

12) 鄭鎮弘, 『韓國宗敎文化的 展開』, 集文堂, p. 94, 1988. 이승이란 「지금·여기」로서 인간 삶의 현실

13) 재인용, 金泰坤, 무가연구, 창우사, 1966, pp. 182~183. 저승이란 「그저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곳인 동시에 이승과의 단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승과 이어져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모랭이(모롱이)를 들 아간다」는 표현

14) 鄭鎮弘, 『韓國宗敎文化的 展開』, 集文堂, p. 99, 1988. 저승이 이승과 단절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이승과 이어져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곳임을 의미한다. 또 저승은 「어디에로든가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나온 관념의 현실...

이러한 이승과 저승은 죽음과 삶, 낮과 밤, 그믐달과 보름달 식물의 잎이 피고 지는 계절의 순환과 같이 동일 축을 선회하고 있는 것<sup>15)16)</sup>이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연결된 것으로 서로 동시에는 공존할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승과 저승은 자연 순환의 측면에서 자연변화에 근거한 동일축의 세계로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한국인의 자연관에서 기인된 것이다.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저승에서 착용하는 사자의 의복을 염습의라 할 때 16·17세기 출토복식이 당시의 일반복식인 점은 이승에서의 의복과 저승에서의 의복이 동일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관에 입각한 내세관이 조선중기 사람들의 의생활 속에서의 생활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는 염습의로 일반착용복식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순환에 의한 내세관을 상징하고 있다할 것이다. 또한 출토복식을 통하여 이러한 정서가 바로 생활 그 자체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오늘날 염습의(壽衣)가 현재 착용하는 의복이 아닌 과거의 의복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가 민속으로만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 III. 조선중기 일상복의 종류

본 장에서는 16·17세기 출토복식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의복에 구체적 특징을 개별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포류의 다양한 종류

##### 단령(團領)

단령(團領)은 그 추정연대가 15세기이전부터 17세기까지로 조선중기 전 시기에 걸쳐, 경기도·충청도·경상도에서 출토되고 있다.(〈표 1〉 참조) 15세기에 있어서 왕과 사서인(士庶人) 모두 단령을 의례복<sup>17)18)</sup>으로 착용하였으나, 17세기에 내려와서 사서인의 경우 직령과 심의를 단령의 대용의복으로 착용<sup>19)</sup>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에 단령을 유관자(有官者)의 공복(公服)으로써<sup>20)</sup> 그 착용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단령이 착용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며, 또 심의와 직령이 유관자가 아닌 자의 단령 대신의 의례복<sup>21)22)</sup>으로 등장하는 것은 의례복의 착용자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령은 답호를 받침옷<sup>23)</sup>으로 착용하였다.

##### 직령(直領)

직령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경기도·충청도·경상도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그 수량은 단령보다 적다(〈표 1〉 참조). 이는 단령의 받침옷으로 착용되었던 조선후기 직령과의 차이로서, 조선중기 직령은 액주음(腋注音)과 첩리(帖裏)를 받

15)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韓國巫俗叢書Ⅳ, 集文堂, p. 232, 1991.

鄭鎮弘, 韓國宗教文化的展開, 集文堂, p. 100, 1988.

16)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韓國巫俗叢書Ⅳ, 集文堂, 1991, p. 478~479.

17) 國朝五禮儀, 王, 喪禮, 「襲」, 袞龍袍 褙褙 帖裏次團領 褙褙 帖裏次團領 褙褙 帖裏次 肚

18) 申義慶, 喪禮備要, 서울대학교奎章閣圖書도서관 도서번호1258, 喪禮, 「襲」, …團領 褙褙 帖裏 次裏肚…

19) 喪禮備要,

家禮考證, 券之2 서울대학교奎章閣圖書도서관 도서번호717 1624(인조4), 喪禮, 「襲」(深衣或直領衣) 호·肚·袍 …

20) 家禮源流, 서울대학교奎章閣圖書도서관 도서번호1633, …團領即公服…

21) 喪禮備要, 喪禮, …深衣無則團領無則直領…

四禮便覽, …直領即俗制常服上衣, 不能具深衣者用之…”

22) 大殮, …上衣團領直領之類直領…

23) 國朝五禮儀, 王 …袞龍袍褙褙·帖裏次 士庶人, 團領·褙褙·帖裏次, 喪禮備要, …褙褙·團領子…

〈표 4〉 조선중기 포류의 형태와 출토지

직령	16세기 중반~17세기 전반까지	
	1-1	1-2
	김위·정용두·벽진이씨·홍계장	김위·이언응
첩리	2-1	2-2
	순천김씨·홍계장·정용두	김위·장홍임씨·김덕령·김덕원·박신동
도포	3-1	
	전박장군	
창의	4-1	4-2
	전박장군·김위	구례손씨·진주하씨
창의	5-1	5-2
	홍항이언응·안동김씨·안동김씨·전박장군·김위	구례손씨·진주하씨·문의신

침옷으로 착용<sup>24)</sup>할 정도의 의례적인 의복으로 단령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을 경우 대용의복으로 착용<sup>25)</sup> 하였을 뿐 아니라 단령과 같은 종류의 의복<sup>26)</sup>이었다. 이는 앞의 단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령이 관(官)이 없는 자들이 의례복으로 착용되었음을 반영한다. 출토직령은 소매형태에 따라 2유형이 있다. (〈표 4〉 참조)

첩리(帖裏)

첩리는 17세기초까지 경기도·충청도·전라도에서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나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양이 감소하고 있다(〈표 1〉 참조). 용어는 털릭·철익(綴翼)·방의(防衣)·첩리(帖裏)·천익(天翼) 등이 있으나 이 시기에는 첩리를 사용하고 있다<sup>27)</sup>. 15세기에 있어서 왕과 일반 모두가 첩리를 단령과 곤룡포의 받침옷으로 착용하였으나<sup>28)</sup> 17세기에 내려와서는 첩리를 다른 의복 포오(袍)로 대체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sup>29)</sup>. (이는 앞으로 「창의」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즉 첩리의 착용이 15세기와 17세기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6·17세기 출토첩리가 출토시기에 따라 2유형으로 분류되는 것도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참조)

도포(道袍)

도포는<sup>30)</sup> 선조40년(1607년)에 처음 그 용어를 볼 수 있으며, 실물도포가 16·17세기에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도포의 형태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트임이다. 현존 최고의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중인 출토도포는 무가 완전히 덮트임으

24) 世宗實錄, 31年 ...常時 直領 腋注香 帖裏...着備未圍領, 直領 腋注香 帖裏...  
 25) 喪禮備要, 喪禮, ...深衣無則圍領無則直領...  
 四禮便覽, ...直領即 俗制常服上衣, 不能具深衣者用之...  
 26) 大殮, ...上衣圍領直領之類直領...  
 27) 장인우, 조선시대 첩리의 유형과 명칭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7.  
 28) 國朝五禮儀, 喪禮, 「裝」, 王, ...袞龍袍·裾襖 帖裏次圍領·裾襖 帖裏次·圍領·裾襖·帖裏  
 29) 喪禮備要  
 喪禮考證  
 30) 金東旭, 韓國服飾史辯證(16), 博物館 新聞, 1983. 6.1.-도포의 생성시기는 문운이 도학쪽으로 기울었던 중종

로 자리잡지 못하고 단지 뒤트임과 함께 뒤자락의 형태를 유지하여 옆트임과 전삼(뒤트임)의 구성이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도포는 외래에서 유입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의복에서 전개된 고유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옆트임의 크기를 살펴볼 때 창의를 겨드랑이 일부가 트인 반면 직령은 겨드랑이 이하 전부가 트인 것으로 도포와 일치한다. 또한 직령은 외례복인 반면 창위는 받침웃인 점과 도포가 사대부의 외례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포는 창위보다 직령에서 전래되었다는 것<sup>31)</sup>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6·17세기에 도포가 형성하였다고 본다. 둘째, 도포가 외례복으로서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것은 그 착용자인 사람의 위치가 16·17세기에는 아직은 지방의 중소지주인 지식인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출토 도포의 소매가 무명인 점, 그러나 그 형태가 불안정한 점과 지방에서 출토된 점도 이를 반영하며 18세기에 이르러서 사서인의 상의(上衣)로 도포가 사용<sup>32)</sup>되는 것은 사람이 중앙의 정치집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 의복도 함께 보다 사회적이며, 의례적인 의복으로 정착한 것으로 생각한다.

### 창위(窓衣)

창위의 유래와 작용에 대해서 여러 선학들의 의견<sup>33)</sup>이 있으며, 창위는 시기적으로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며, 지역적으로 전라도를 제외한 경기도·충청도·경상도에서 출토되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창위의 수량이 다른 포류에 비해 적은 것으로 시기적으로 16세기 이전착용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게 하며, 특히 창위가 문헌에 나타나지 않음도 이를 반영한다.(〈표 1〉 참조) 여기서 창위의 출토시기를 살펴보면 칼깃의 포인 첩리가 15세기 이전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출토되고 있는 반면, 창위는 16세기 중반부터 출토되고 있다. 여기서 동시대 문헌에서 첩리라는 용어가 16세기 이전까지 나타나는 반면 17세기 이후에는 포오(袍)가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명칭 「포오」와 출토창위를 연관시킬 수 있다. 다음 4장의 의복간의 구조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출토창위는 피장자의 성(性)에 따라 2유형이 있다(〈표 4〉 참조).

### 장의(長衣)

출토복식에 나타난 장의는 단일 의복으로 그 출토량이 가장 많으며, 시기별로는 15·16·17세기 전시기에, 지역별로는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전지역에서 출토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장의를 일상복으로 착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기 장의는 남·녀가 함께

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高福男, 앞책.－도포가 언제부터 착용되었는가는 확실치 않으나, 기록이나 실물상:으로 16세기전후에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31) 金東旭·柳喜卿 각 앞책.－도포는 장의와 창위가 혼합되어 형성되었음.－

韓原茂, 南塘草稿,－직령의 도포로의 전개로 옆트임 역시 직령에서의 전개를 언급－여기서 한원진이 직령에서 도포로의 전개를 구성적 측면인지, 혹은 그 착용기능면에서인지 확인할 수 없다.

32) 李圭景, 五洲衍文長錢散稿…士庶人常服上衣用道袍

33) 高福男, 앞책, p. 13. 308. 鶴窓衣는 深衣와 더불어 상당히 오래된 것이며, 여자의 출토지에서 창위가 출토되는 것으로 조선중기에 남·녀가 창의를 착용했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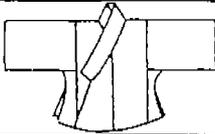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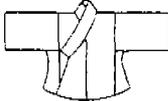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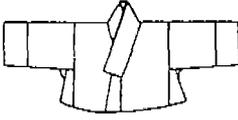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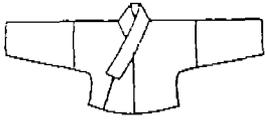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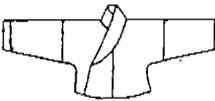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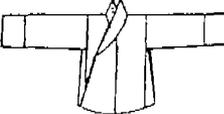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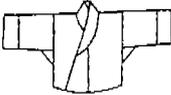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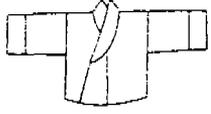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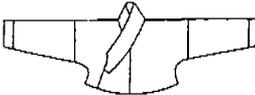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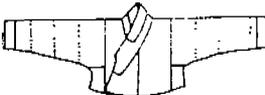
金美子, ‘무엇고 옆트인 포에 대한 연구’, 서울여대논문집, p. 419.

창위는 조선시대의 여러 종류의 袍와 그 형태가 다른 중국제로 언급.

金東旭, 한국복식사, 아세아 문화사, p. 69.

金美子, 앞글 창위는 道袍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5> 조선중기 저고리의 형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목판깃저고리				
	정용두 · 이언옹 · 전박장군	구례손씨 · 홍계강 · 이언옹	정용두 · 이언옹 · 홍계강 · 순천김씨 · 안동김씨 · 문익신 · 김덕령	진주하씨
칼깃저고리				
	구례손씨 · 전박장군 · 홍우협	전박장군	김위	정용두 · 문익신 · 장홍임씨
당코깃저고리				
	구례손씨 · 전박장군 · 양천허씨		홍우협	

착용<sup>34)</sup>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장오자<sup>35)</sup>로도 언급하였다. 출토복식 가운데 장의는 피장자의 성(性)에 따라 두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4> 참조)

구의(◆衣)

출토구의는 조선중기에서는 1벌만이 출토되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구의가 일상적인 의복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전 박장군에서 출토된 목판깃의 교입의 포를 김동욱 유송욱은 구의로 지정<sup>36)</sup>하였으나, 고복남은 이 옷이 『삼재도회(三才圖會)』 배자(背子)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구의보다는 반비(半臂)로 분류하였다<sup>37)</sup>. 원래 구

의란 갓옷 즉 가죽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질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을 재질에 관계 없이 구의라 칭하고 있다.

2. 저고리류의 다양한 유형

한국(韓國) 전통의복(傳統衣服) 가운데 저고리는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저고리의 각 종류(種類)에 특정 명칭(名稱)을 찾아주는 일은 아직도 더 많은 연구(研究)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조선중기 저고리의 종류는 옷깃 형태에 따라 목판깃저고리 칼깃저

34) 세조 2년 今國中女子衣着長衣若男子然

35) 家禮原流, 喪禮, 陳襲衣, 奎 1633. 長襖子袖狹俗稱長衣

36) 金東旭 劉頌玉, '忠北 淸原郡 傅朴將軍墓 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報告書" 第 83 號, 文化財管理局, 1979.

37) 高福男, 앞책, p. 381. 구의의 형태가 삼재도회의 배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반비로 분류한다고 하고있다.

34) 세조 2년 今國中女子衣着長衣若男子然

35) 家禮原流, 喪禮, 陳襲衣, 奎 1633. 長襖子袖狹俗稱長衣

36) 金東旭 劉頌玉, '忠北 淸原郡 傅朴將軍墓 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報告書" 第 83 號, 文化財管理局, 1979.

37) 高福男, 앞책, p. 381. 구의의 형태가 삼재도회의 배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반비로 분류한다고 하고있다.



심의<sup>44)</sup> 도포<sup>45)</sup>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단령은 유관자(有官者)의 경우만 착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상의는 일반복식이 가운데 의례포(儀禮袍)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살펴볼 때 『국조오례의』에서는 단령이, 이후의 『상례비요』에서는 단령·직령과 심의가, 그 후의 조선후기의 『四禮便覽』에서는 團領·深衣·道袍·直領으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儀禮袍가 확대·발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직령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의례정도가 적어지고 있다. 포는 반드시 그 아래 착자(著者)와 설의(褻衣)를 착용한다. 상의(上衣) 즉 의례포의 받침옷임을 의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서와 출토복식에 나타난 답호·첩리·포오·장의 장오자·몽두의 등을 착자 혹은 설이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착자(著者)란 의례복(上衣)도 아니고 받침옷(褻衣)도 아닌 일상복으로 추정한다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첩리와 포오는 받침옷(褻衣)이라 할 때, 그 외의 장의·장오자는 일상복(著者)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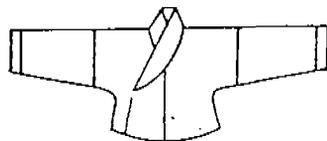
저고리류는 다음에 언급할 그 구성에 의하여 분류하면 의례저고리로 옆트인 목판깃저고리(長), 일상저고리에 목판깃저고리2·목판깃저고리3(短)·당코깃저고리, 속저고리는 칼깃저고리라 할 수 있다.(<표 5> 참조) 여기서 포류는 의례포에서 그 종류가 발달하는 반면 저고리류는 일상저고리에서 발달하고 있다. 이는 포류와 저고리류가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 포류와 저고리의 종류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것은 바로 의복의 중착(重着)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이 시기가 의복착用に 하나의 착용격식이 갖추어지는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즉 의복의 착용의례가 생활화된 것으로 유교의 영향이라 생각한다.

2) 의복유형에 의한 동형(同型)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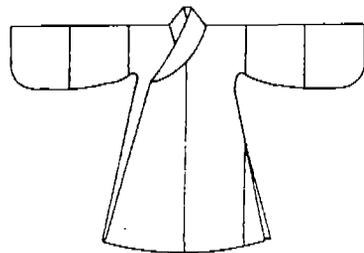
한국의 포와 저고리는 유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포와 저고리가 각각 고유 유형을 지닌 이형관계와 유사한 유형의 동형관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 명칭에서도 전자는 단령·도포와 같이 고유 명칭을 지니는 반면 후자는 창의(포오(袍襖)·단오자(短襖子), 장의(長衣)·단의(短衣)와 같이 오「襖」「衣」「襦」를 길이에 의해서 단순히 구분한다. 여기서 후자의 동형관계를 출토복식 가운데 창의와 칼깃저고리, 장의와 목판깃저고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의와 칼깃저고리

창의와 칼깃저고리의 구성요소를 비교하면 <표 6>과 같이 무가 거의 없이 트임이 나타나며 특히 그 크기가 작은 것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색상은 염색을 하지 않은 소색이 주색상을 이루고 있다. 구성유형이 솜과 누비 구성이며, 재질이 명주 혹은 무명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6>참조) 따라서 겉옷보다는 방한용의 받침옷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의와 칼깃저고리는 유형·색상·구성요소·재질에서 동형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림 2> 칼깃저고리



<그림 3> 창의

44) 李圭景, 五州衍文長 箋散稿. 士庶常服上衣用道袍

45) 四禮便覽, 喪禮, 復. 有官者公服或深衣庶人深衣, 無則代以道袍或直領

〈표 6〉 창의와 칼깃저고리의 상관성

종류	출토지	명칭	유형			재질				옷깃		소매			무			트임		색상								
			홀	겹	숨	숨누비	누비	명주	무명	모시	삼베	목판깃	칼깃	당코깃	단령	곡선	직선	사선	삼각형무	사다리꼴무	사각형무	곡선무	대	소	무	소색	갈색	청색
창의	구례손씨	소색명주누비				○	○				○			○								○		○				
		소색명주누비				○	○				○			○									○		○			
		소색명주누비				○	○				○			○									○		○			
		소색명주		○			○				○			○									○		○			
		소색명주누비					○	○			○			○									○		○			
		소색명주누비					○	○			○			○									○		○			
		갈색명주누비			○		○				○			○									○			○		
전박장군	아청색무영겹		○				○			○			○								○				○			
칼깃저고리	구례손씨	소색명주저고리		○			○			○				○								○		○				
	전박장군	소색무명겹유저고리		○				○			○				○							○		○				
		소색무명겹유저고리		○				○			○				○							○		○				
	김위	삼베적삼								○	○				○							○		○				
		삼베적삼								○	○				○							○		○				

출토 창의와 칼깃저고리는 구성상 다른 상의류와는 달리 길(胴)이 직선일뿐 아니라 사선의 구성이 나타나며, 소매에서 창의는 곡선 소매이고 칼깃저고리는 사선의 형태로서 직선의 소매형태에서 벗어난 형태적 공통점을 볼 수 있다. (〈그림 2〉·〈그림 3〉 참조)

저고리의 용어가운데 「한삼」은 원래 면복(冕服)의 받침옷인 백초중단(白縮中單)을 이르는 것이나, 한(漢)나라 고조(高祖) 항우(項羽)가 전쟁 중 그 이름이 한삼(汗衫)으로 바뀐 것<sup>46)</sup>으로, 홀겹의 받침옷을 말한다. 또 창의(幟衣)의 일종<sup>47)</sup>으로 창의와 유사한 저고리임을 말한다. 더욱이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나타난 한삼의 옷깃 역

시 칼깃인 점은 전혀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삼은 바로 칼깃저고리의 용어라 추정되나 앞으로 더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창의와 목판깃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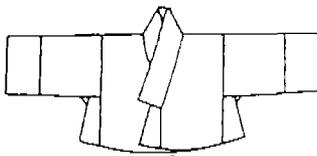
또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색상에 있어서 청색과 갈색의 유색이며, 구성요소는 삼각형과 사다리꼴형의 2개의 무와 겹·숨·누비 등 다양한 구성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유색구성과 다양한 구성유형은 이 두 의복이 계열에 관계없이 착용한 일상복임을 의미한다.

포와 저고리를 상징하는 용어 오(襖)는 과거의 유(褌)로써 저고리이며, 좁은 저고리나 속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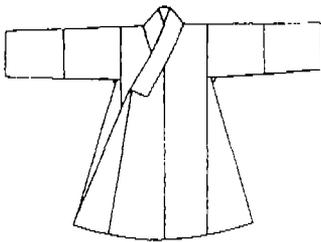
46) 家禮考證, 喪禮, 唐車服志. 朝燕衰冕中有白 中單, 高祖與項羽戰汗透中單改名汗衫貴賤通服... 家禮便覽, 喪禮, 韻府群玉.  
家禮原流, 喪禮, 韻書. 爲冕服下白 中單, 據此則當爲今俗 衣之類, 果然則當別具小衫矣  
47) 家禮原流, 喪禮, 韻書. 據此則當爲今俗 衣之類, 果然則當別具小衫矣.

<표 7> 장의와 목판깃저고리의 상관성

종류	출토지	명칭	유형			재질			옷깃		길		소매			무			유			색상						
			홀	겹	숨	숨누비	누비	명주	무명	삼베	목판깃	칼깃	방코깃	단령	직선길	사선길	곡선	직선	사선	삼각형무	사다리꼴무	사각형무	곡선무	유대	무소	소색	갈색	청색
장의	구례 손씨	청색무명겹유		○			○		○				○		○			○	○									○
	전박 장군	청색무명겹유		○			○		○				○		○			○	○									○
		갈색무명누비			○		○						○		○			○	○									○
	안동 김씨	두루색명주				○	○						○		○			○	○									○
		두루색명주				○	○						○		○			○	○									○
목판깃저고리	순천 김씨	갈색저고리		○			○		○				○		○			○	○								○	
		갈색저고리		○			○		○				○		○			○	○								○	
	전박 장군	소색명주겹삼수	○				○		○				○		○			○	○						○			
	안동 김씨	겹삼수삼회장저고리	○				○		○				○		○			○	○								○	
	겹삼수삼회장저고리	○				○		○					○		○			○	○							○		



<그림 4> 목판깃저고리



<그림 5> 장의

리를 착용하며 오자(襖子)란 일상복인 겹저고리<sup>48)</sup>를 말한다. 앞에서 장오자는 장의(長衣)를 칭하며, 오자는 단오자(短襖子)를 의미한다고 볼 때, 장의와 동형을 이루는 목판깃저고리<sup>3</sup>은 단지 길이에서만 차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자 혹은 단오자(短襖子)는 목판깃저고리<sup>3</sup>을 지칭한다고 본다<sup>49)</sup>. 더욱이 목판깃저고리의 깃·끝동·무·설의 이색(異色)배색이 삼국시대 기본저고리<sup>1</sup>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의와 목판깃저고리<sup>3</sup>이 삼국시대의 기본포(基本袍)와 유(襦)에서 이어져 온 고유(固有)의 포(固有袍)와 저고리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삼국시대의 포와 유(襦)의 의복구조가 조선중기의 일상복에서 지속됨을 확인함으로써 의

48) 家禮考證, 喪禮, : 橫渠先生解 袴義曰袴則今之袴也 則今之襖子也, 是今之襖則古之襦, 袍有著者亦襖衣也, ... 云 蓋當時世俗所常服者.

49) 朴聖箕, 앞글, 이 저고리에 대해서 小襖子, 短襖子, 短亦古里, 小對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고 언급 있다. 특히 전기출토 저고리를 길이를 중심으로 3종류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저고리의 옷깃을 중심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복간의 전통이 조선중기까지 이어져 옳을 알 수 있다.

### 3) 성(性)에 의한 동착(同着)구조

출토복식 가운데 창의(포오)와 장의의 2유형은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남녀의 것으로 2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차는 크기와 색상에 있어 볼 수 있다(〈표 4〉 참조). 그 가운데 크기는 품·길이·화장에서 남·녀의 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표 4〉 참조). 즉 남성의 창의와 장의는 여자의 것보다 품을 크게 구성한 반면 길이와 화장은 여성의 것을 남성의 것보다 길게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품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크기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길이와 화장은 신체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의복일지라도 여성의 것은 보다 폐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녀가 의복종류를 달리 착용하는 적극적 이형 착용에 대하여 소극적 이형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남자의 장의와 목판깃저고리<sup>3</sup>은 단색인 반면 여성의 장의와 목판깃저고리<sup>3</sup>은 옷깃과 끝동에 다른 색상 혹은 재질로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여자의 袍와 저고리가 배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착용자의 성에 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三國時代의 기본복의 선(纈)·끝동 등이 이색(異色) 배색(配色)의 맥이 여성 의복구성에서 이어져 오는 것은 여성의 의복이 남성의 의복보다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장의·칼깃저고리·목판깃저고리<sup>3</sup> 모두 남녀가 함께 착용하는 것은 삼국시대의 포와 저고리의 구조가 이어져 옳을 반영한다. 장의의 경우 남자의 것은 청색계통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두록색이다. 이는 청색은 정색(正色)인 반면 두록색은 간색(間色)인 점은 남·녀의 성에 의한 차이를 색으로 반영하고 있음이라 본다. 이것은 의복 색상구성에 사상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 복식은 상의(上衣)와 착자(著者) 및

설의(褻衣) 등 착용역할에 따라 중착구조와 또한 형태를 통하여 포와 저고리의 동형구조, 그리고 착용의 성에 따라 크기·색상을 달리하지만 남녀가 동일의복을 동착구조(同着構造)를 볼 수 있다.

## 2. 구성

### 1) 형태에 의한 구성

의복구성중 크기와 색상 재질 및 구성유형의 측면에서 출토복식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 색상

〈표 8〉에 의한 의복의 색상을 살펴보면 단령 직령과 칩리와 목판깃저고리<sup>1</sup>(長)은 갈색(褐色) 중심에 일부 청색(靑色)과 소색(素色)의 단색이며, 창의(袍襖)와 칼깃저고리는 백색중심의 단색이며, 장의와 목판깃저고리<sup>2·3</sup>(短)은 청색·두록색·갈색으로 다양하다. 그 중 남자의 장의와 목판깃저고리<sup>3</sup>은 단색인 반면 여성의 장의와 목판깃저고리<sup>3</sup>은 옷깃과 끝동에 다른 색상의 배색을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의복의 착용역할에 따른 의례복과 받침옷은 단색인 반면 일상복인 장의와 목판깃저고리<sup>3</sup>(短衣)의 여성의 것에서 나타나는 이색배색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 일반복식의 색상은 의복에 따라 다르며, 갈색과 청색중심이다. 이러한 청색과 갈색은 자연인 하늘과 땅의 색과 일치한다. 이렇게 의복의 색과 자연의 색이 일치하는 것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상복의 색상이 청색중심인 것은 전통적인 오행설(五行說)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목국(木國)으로서 청색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며, 남성의 의복은 청색의 정색(正色)인 반면 여성의 것은 두록계통의 간색(間色)인 것은 음양사상에 일치한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사상의 생활화를 볼 수 있다.

〈표 8〉 조선중기 포류와 저고리류의 의복별 구성

분류		포 류						저 고 리 류					
종류 구성	단령	직령	도포	첩리	창의	장의	첩리	목판깃 저고리 1장	칼깃 저고리	목판깃 저고리 2	목판깃 저고리 3(단)	당코깃 저고리	
	길이	132	123	119	111	124	118	128					46
화장	132	122	110	105	103	98	116					73	
품	남				33	33~34		75~78	60~68				
	여				23	22~23		65~69	52~58		52	46~52	
색상	종류	청색· 소색· 갈색	갈색	소색· 갈색	소색· 갈색	소색· 갈색	청색·두 록색·소 색·갈 색·흑색	갈색· 겨자색	갈색	백색	청색· 갈색	갈색· 두록색	갈색· 두록색
	배색	단색	단색	단색	단색	단색	단색· 배색	단색	단색	단색	단색	배색	배색
재질	명주· 운문단	무명· 명주· 운문단	모시· 무명· 명주	무명· 명주	무명· 명주	명주· 무명· 모시	명주	무양단	무명· 명주	명주	무명· 문양단	명주· 무명	
구성 유형	홀깃	겹	홀깃	숨· 누비	숨· 주 비		홀깃	겹	홀깃· 숨	숨	겹· 숨· 누비	겹· 숨· 누비	
착용자	남	남	남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	남·여	여	
옷깃	단령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목판깃	반달깃	목판깃	반달깃	목판깃	목판깃	당코깃	
술기 어깨	꺾	꺾	꺾	꺾	꺾	꺾	꺾	꺾	꺾	꺾	꺾	꺾	

크기

〈표 8〉에 의한 의복의 길이·화장·품의 크기를 살펴보면 길이에 있어서 포류는 단령(團領)·직령(直領)·도포(道袍)·첩리(帖裏)(長)·창의(窓衣)·장의(長衣)·첩리(帖裏)(短)의 순으로 차이가 있다. 화장의 경우는 단령·직령·도포는 3幅 반, 첩리·창의는 3폭(幅), 장의·구의는 2폭(幅)으로 단순한 길이뿐 아니라 구성에서 화장에서는 사용한 직물의 폭수(幅數)를 달리하고 있다. 저고리는 목판깃저고리1(長)가 목판깃저고리2.3과 당코깃저고리와 칼깃저고리보다 길게 구성된 반면 일상저고리인 목판깃저고리2·3과 받침저고리인 칼깃저고리는 유사하다. 그러나 화장은 의례적인 목판깃저고리1(長)이 일상저고리와 받침저고리보다 짧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포(袍)와의 구성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품의 경우는 창의와

장의에서 남자의 것이 여자의 것보다 넓다. 반면 길이와 화장은 남자의 것이 여자의 것보다 짧다. 여기서 품의 크기의 차이는 남·녀의 신체 크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길이와 화장의 차이는 여성의복이 남성복보다 폐쇄적임을 의미하거나 혹은 보다 의례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 포류는 의복의 역할과 착용자의 성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한다. 의복에 따라 길이·화장·품의 크기가 의복에 따라 다르다.

구성유형

출토복식은 홀깃·겹·숨·숨누비 등으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의복의 역할이 의례적인 의복인 단령·도포는(〈표 8〉 참조) 홀깃인 반면 목판깃저고리는 두점으로 그 구성유형이 일정하다. 이는 과거 풍족하지 않았던 의복생활에서 의례복을 계절마다 소유하기 어려웠던 이유와

구성에서 숨을 두거나 누비가 의례복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과거 사람들의 미의식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의례적인 의복에서 포(袍)는 홀겹으로 저고리는 두겹으로 구성한 것은 포의 경우 안에 의복을 겹쳐 입어야 하는 기능성 외에도 양수(陽數)로서 홀겹으로, 음수(陰數)로서 두겹구성으로 유추할 수 있다.(〈표 8〉 참조)

이는 포는 양의 옷으로, 저고리는 음의 옷으로 본 것이라 생각한다. 직령과 첩리(3-2)는 홀겹과 두겹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복인 장의와 목판깃저고리2·3 및 당코깃저고리는 두겹·숨·숨누비·누비·동 구성이 다양하다. 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하였음을 뜻하며 반침옷인 첩리(3-1)와 창의와 칼깃저고리는 홀겹·숨·숨누비의 구성으로 방서·방환으로 착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의 의복은 포류(袍類) 뿐 아니라 저고리도 착용역할에 따라 의례복·반침옷·일상복으로 분류하고 형태에 따라 색상·크기·구성유형을 통하여 그 형태적 구성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의 착용역할이 의복의 형태구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의복의 역할이 공복(公服) 등에 반영된 것과 달리 일반복식에서 적용됨은 일반복식을 착용하는 사람들 간에 다양한 계층이 형성하고 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구성요소에 의한 구성

16·17세기 출토복식 가운데 포와 저고리의 구성요소는 옷깃·길·소매·무·트임 등이 있으며 이 구성요소는 의복종류에 관계없이 구성하는 기본요소와 의복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하는 부가적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다.

### (1) 기본 구성요소

조선중기 의복의 기본구성요소는 옷깃·길·

소매가 있으나, 여기서는 변화를 볼 수 있는 옷깃과 소매만 다루겠다.

### 옷깃

옷깃은 특정 의복에서 그 종류가 변화하지 않는 요소로 의복유형을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출토복식에 나타난 옷깃은 단령·목판깃·칼깃·당코깃의 4종류이다. 칼깃은 직령(直領)·첩리(帖裏)·도포(道袍)·창의(裳衣)와 칼깃저고리의 옷깃으로 포류 중심인 반면 목판깃은 창의와 목판깃저고리1·2·3의 옷깃으로 저고리 중심의 옷깃이며, 단령(團領)은 포 전용의 옷깃이며, 당코깃은 저고리전용의 옷깃이다. 그러나 여기서 홍우협의 짧은 단령<sup>50)</sup>과 광해군의 당코깃 창의<sup>51)</sup>와 같이 예외적이 경우도 있다. 여기서 당코깃의 형성은 옷깃을 통하여 조선중기 의복이 포와 저고리류로 유형상 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포와 저고리가 각각 고유 유형을 형성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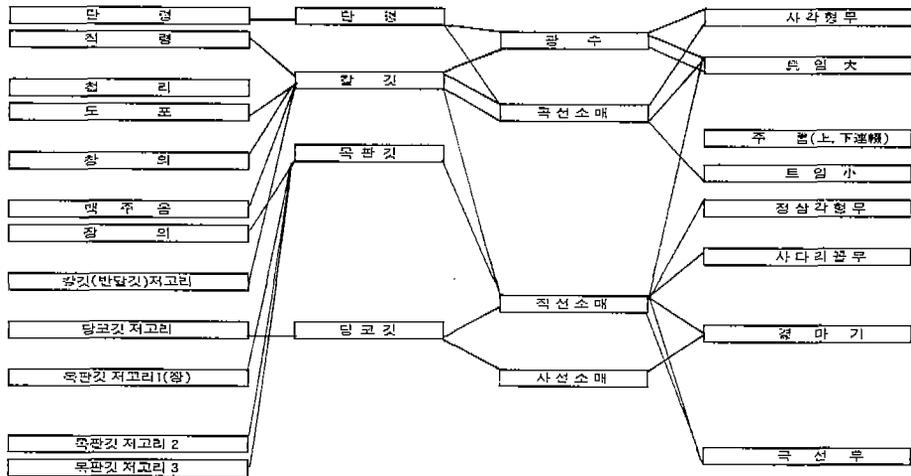
출토복식에 나타나는 소매는 형태에 따라 직선소매·곡선소매·사선소매·두리소매가 있다. 여기서 직선소매는 창의와 목판깃저고리1·2·3과 일부 칼깃저고리와 당코깃저고리에서 나타난다. 또 곡선소매는 단령·직령·도포·첩리·창의 등 포에서 볼 수 있으며, 두리소매는 일부 직령과 단령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포류의 소매형태는 직선인 창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곡선소매와 두리소매의 곡선형인 반면 저고리의 소매형태는 사선소매와 직선소매의 직선형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단령과 직령의 경우 동일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소매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의복의 착용역할에 따른 구분으로 단령·

50) 김명숙, 17세기 출토복식, 홍우협 충북대학교 박물관

51) 문화재 관리국 보고서

〈표 9〉 포·저고리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직령의 경우 두리소매의 것은 공복으로, 장수(곡선소매)의 것은 의복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삼국시대의 대수포(大袖袍) 혹은 작수(窄袖), 조선후기의 대창의 소창의에서와 같이 소매의 형태가 의복을 상징하는 전통이 이어짐을 볼 수 있다. 즉 소매형태가 의복착용 역할을 상징하는 요소로 구성되고 있음을 말한다.

(2) 부가적 구성요소

출토복식 가운데 포와 저고리에 나타나는 부가적 구성요소는 무·트임·결마기가 있다. 무(襟)는 형태에 따라 정삼각형·사다리꼴무·사각형무·곡선무가 있으며, 트임은 크기에 따라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즉 도포·직령·단령과 목판깃저고리1(長)는 트임이 겨드랑이까지 크며, 창의와 칼깃저고리는 트임이 옆선의 일부까지 작다. 반면 창의·목판깃저고리2와 3(短)·당코깃저고리는 트임이 없이 2개의 무로 이루어졌다.

기본 구성요소 가운데 옷깃의 형태가 곡선인 단령과 칼깃의 첩리·포오·도포·직령 등의 소매는 곡선이며, 칼깃저고리와 당코깃저고리의 소매

는 사선중심으로 직선에서 벗어나고 있는 반면 옷깃의 형태가 직선인 목판깃 창의와 목판깃저고리들은 직선소매이다. 다음은 옷깃이 곡선인 단령·직령·도포·창의·칼깃저고리는 부가적 구성요소 중 트임을 통하여 의복의 구조를 개방형으로 이루는 반면 옷깃이 직선의 목판깃인 창의와 목판깃저고리는 무를 사용하여 폐쇄형을 이루고 있다. (〈표-9〉 참조)

즉 옷깃이 곡선일 때는 의복의 구성이 곡선적이면서 개방형구조를 이루고, 직선일 경우는 직선적이면서 폐쇄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옷깃은 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구성요소 가운데 옷깃의 성격은 의복전체 유형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복의 명칭이 '단령', '직령' 등 옷깃의 종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봉제에 의한 구성

음양사상(陰陽思想)

출토복식에 나타난 의복구성 중 여밈·솔기·

52) 國朝五禮儀, 喪禮, 沐浴, '沐巾二上下體各用一也'. 喪禮備要, 喪禮, 沐浴, '沐巾二上下體各用一也'.

누비에서 방향을 볼 수 있다. 여밈은 우임이고, 솔기의 경우 걸선의 솔기는 섯쪽으로, 뒷중심의 솔기는 오른손쪽으로, 안선의 솔기는 길쪽으로 모두 왼손쪽에서 오른손쪽으로 그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음양사상(陰陽思想)에서 왼쪽이 양(陽)으로서 작용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의복구성에 나타나는 방향은 음양사상이 적용되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중기는 이러한 방향이 혼용되고 있어 아직은 정착되지 않고 변화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 신체관(身體觀)

출토복식에 나타난 의복구성에 있어서 어깨선이 모두 굽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앞(前)의 연장이 뒤(後)임을 의미하며, 더욱이 예서(禮書)에 나타난 상례(喪禮) 중 「沐浴」에서 시신(屍身)을 다룰 때 전·후(前後)보다는 상·하(上·下)로 다루는 것<sup>52)</sup> 역시 이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다. 또한 소매의 올 방향이 팔을 어깨선과 일치선으로 한 상태에서 길의 올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팔을 편 상태의 신체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렇게 의복구성에 있어서 당시 지니고 있던 신체관을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의복을 신체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을 상징한다.

### 천지인 사상(天地人 思想)

출토복식에 나타난 봉제에 있어서 누비포의 안단 상침과 여자 속옷류의 어깨끈 상침에서와 같이 3땀상침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천지인 사상을 의복에 바늘땀의 수(數)를 통하여 상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선중기 출토복식의 봉제구성은 방향(方向)과 수(數)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음양(陰陽)·신체관(身體觀)·천지인(天地人)의 사상(思想)을 상징화하였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의복을 일상에 착용함으로써 그들이 지녔던 사상(思想)과 정신(精神)을 생활 속에 접목시키고 있

다. 이는 한 시대복식이 그 시대 정신과 사상을 상징화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 V. 조선중기 복식의 변화체계

### 1. 계층변화에 따른 유형변화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조선중기 일반복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의복이 여러 유형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때 조선중기 일반복식이 그 착용계층(着用階層)의 사회적 신분변화에 따라 의복유형(衣服類型)이 다양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아울러 계층변화를 통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조선중기 前後시대 의복 유형의 변화를 하나의 특정 계층이 지속하는 경우와 계층이 변화하는 경우, 혹은 새로운 계층이 형성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복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착용계층이 지속하는 경우

출토복식 가운데 단령과 직령은 구성요소로 보아 그 유형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다. <표 9> 이러한 유형의 안정은 후기까지 지속하고 있다. 단령과 직령은 유관자의 관복과 남성의 최고 儀禮服으로써 착용역할이나 계층의 변화없이 그 착용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 유형의 안정은 물론 동일 명칭으로 지속하고 있다.

#### 2) 착용계층이 새로이 형성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조선중기 출토 도포의 유형불안정은 도포가 외래에서 유입된 도포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임을 의미하며 더불어 이 시기가 도포의 형성기임을 반영하며, 또 조선중기의 도포는 최고 의례복이 아닌 일상 의례복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이는 도포가 사립이라는 집단의 상징의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때 사립의

지위와 함께 이 의복의 역할도 변화했다고 본다면 조선중기 사림은 그들의 의복을 형성할 정도로 수는 팽창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아직은 완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도포는 사림(士林)이라는 계층이 지속하는 조선말기까지 그 유형과 명칭이 변화 없이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도포는 사림(士林) 유학자의 상징 의복으로 그 역할이 변화없이 착용되었기 때문에 道袍를 착용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도포(道袍)는 유교(儒敎)의 상징적 의복으로 지속되고 있으니, 도포는 사림이라는 새로운 계층에 의해 형성된 의복이다.

### 3) 착용계층의 신분이 변화하는 경우

착용계층이 변화하는 경우는 그 의복의 유형(類型)은 물론 명칭(名稱)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첩리(帖裏) 창의(裳衣) 장의(長衣)에서 볼 수 있다. 이 세 의복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첩리(帖裏)

帖裏는 그 출토양에 있어서 조선 전기(前期)는 다량(多量)이 출토되고 있지만 중기(中期)에 이르러서는 그 양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착용빈도(着用頻度)의 감소는 그 착용역할(着用役割)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착용계층(着用階層)이 일반 대중(大衆)에서 소수로의 감소로 유추할 수 있다. 출토양의 감소와 함께 첩리 유형은 조선 전기의 받침옷에서 중기 이후 의례복으로 의복 역할이 변화하며, 명칭(名稱)에 있어서도 첩리(帖裏)에서 이후 17세기부터는 「綴翼」 「天翼」으로 혼용하고 있다. 이는 「첩리」의 의복역할 변화에 따라 착용자의 신분변화에 따른 의복 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 창의(裳衣)

조선중기 창의는 유물상 남 녀가 착용하는 일상포 가운데 받침옷이나 후기로 내려오면서 남성전

용 의복으로 착용계층의 변화와 한 계층에서도 착용하는 착용자의 지위에 따라 일상복의 소창의(소창의)와 의례복의 대창의(大裳衣)로 세분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그 명칭도 「창의」 혹은 「대창의」「소창의」「창옷」으로 변화하고 있다.

#### 장의(長衣)

출토복식에 나타난 조선중기 장의는 남 녀가 함께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의는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남녀동형(男女同形)에서 남녀이형(男女異形)의 의복으로 그 착용자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성(性)에 의한 남녀의 차별이 계층(階層)의 변화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성(性)에 의한 유형의 변화가 남자의 경우 그 유형이 지속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쓰개형태 옷으로의 변화와 함께 그 명칭도 장옷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다.

## 2.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복의 구성 체계 변화

### 1)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분화에 따른 의복의 다양화

조선중기에 있어서는 일반계층 중 남성의 사회적(社會的) 역할(役割) 증가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른 계층(階層)의 형성(形成)은 이를 상징하는 의복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회계층이 세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창의와 같이 단일 의복에서도 그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층의 역할증가는 포류가 필수 의복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유(襦, 저고리)와는 다른 고유(固有) 유형(類型)을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각 유형에 따라 명칭이 형성하였던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襦)와 포류(袍類)가 동

형(同形)에서 이형(異形)으로 분리하였으며, 사회구조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의복인 포류가 발달하는 반면 저고리는 그 받침옷으로써 역할이 축소와 함께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성(性)에 의한 계층분화에 따른 의복의 분화

조선중기에 있어서 남 녀의복의 구성체계는 동형구성(同形構成) 의복에서 이형구성(異形構成)으로 변화하고 있다. 조선중기 남성의 경우 포류가 발달하고, 여자의 경우는 저고리 중심의 유형이 발달하는 것은 사회구조상 남 녀계층의 평등관계에서 불평등의 관계로 변화한다. 이는 조선중기에 이르러 유교의 영향으로 성에 의한 계층분화(階層分化)가 의복의 구성체계(構成體系)에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의 유일한 포인 장의는 장옷으로 쓰개형태로 변화하여 포류가 사라지는 것은 이러한 남 녀계층의 차별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조선중기에 있어서는 의복의 성별차이는 남녀의 중심 의복이 종류를 달리하는 변화는 나타나지만 아직도 남녀가 함께 착용하는 장의·창의·목판깃저고리를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중기 의복이 남 녀계층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후 시기 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 녀계층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선중기가 그 전환기임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포류는 사회적 의복으로 그 착용계층이 의복변화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변화는 의복의 구성요소에 의한 유형변화에 이어 명칭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즉 하나의 계층이 변화 없이 지속하는 경우는 의복의 유형과 명칭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반면(단령·직령·도포), 착용계층이 새로 형성하는 경우는 이러한 새로운 계층을 상징하는 의복의 유형과 명칭이 형성되며(도포), 형성된 계층이 변화하는 경우는 의복도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첩

리·장의·장의)는 것은 주목 할만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포류의 변화는 착용계층의 지위역할의 변화에 따라 그 유형이 변화하며,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명칭변화로 정착하게 된다.

## VI. 결 론

신분(身分)에 의해 계층(階層)이 구분되는 사회에서 복식은 신분상징(身分象徵)과 함께 사회체제(社會體制)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중요시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무덤에서 출토된 16·17세기 출토복식은 염습의로써 당시의 일반복식에 해당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출토복식의 특성이며 아울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는 이승에서의 일상복을·저승에서의 의복(염습의)과 동일시하였음은 삶과 죽음을 동일축의 자연의 순환체계로 보는 당시의 내세관을 함축하고 있다.

실물자료인 16·17세기 출토복식의 특징은 의복의 종류가 단령·직령·도포·첩리·창의·장의·구의와 목판깃저고리·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각 의복에 여러 유형이 공존하는 점이다. 또한 각 의복은 의례복(上衣)·받침옷(藝衣)·일상옷(著者)의 착용역할을 지닌다. 즉 의례복은 상의(上衣)로 가장 겉에 착용하는 의복으로 단령·직령·도포와 목판깃저고리1(열트인 목판깃저고리)이며, 받침옷은 설의(藝衣)로 의례복의 방서와 방한용 옷으로 창의·첩리와 칼깃저고리(汗衫)이며, 일상복은 평상시 남·녀 모두 착용하는 의복으로 장의와 목판깃저고리2·목판깃저고리3(短衣·短褌子)과 당코깃저고리이다. 즉 포류에서는 단령에서 직령·심의·도포 등으로 의례복이 확대되는 반면 저고리류에서는 목판깃저고리2·목판깃저고리3·당코깃저고리의 일상복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중기 의복의 구조는 중착(重着)구조와 동착(同着)구조 그리고 동형(同型)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의복의 착용역할에 따라 의례복은 반드시 받침옷을 착용하는 중착구조, 창의와 칼깃저고리, 장의와 목관깃저고리<sup>3</sup>에서 포와 저고리의 형태가 유사한 동형구조, 장의와 창의에서 착용자의 성에 따라 품의 크기만 달리하여 동일한복을 성에 관계없이 착용하는 동착구조를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중기 의복의 구성은 형태에 의한 구성, 구성요소에 의한 구성, 봉제에 의한 구성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구성은 의복의 역할에 따라 색상·크기·구성유형을 달리한다. 즉 의복의 길이와 화장의 크기는 의례복·받침옷·일상복의 순으로 달리하며, 색상은 의례복은 갈색중심, 받침옷은 소색, 일상복은 청색계통으로, 구성유형은 의례복에 있어서 계절에 관계없이 포는 홑겹으로 저고리는 두겹으로 받침옷과 일상복은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이었다. 구성요소에 의한 구성은 의복의 역할에 따라 의례복과 받침옷은 트임을 통한 개방형인 반면, 일상복은 무를 통한 폐쇄형으로 그 구성을 달리하며 특히 깃의 성격에 따라 직선 혹은 곡선으로 의복전체의 구성을 달리하였다. 봉제구성은 음양사상 및 신체관을 원리로 방향(方向)과 수(數) 및 형태를 통하여 상징화 하였다. 연결술기의 방향은 양조(陽左)·음우(陰右)로 왼손 쪽에서 오른손 쪽으로 향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또 의례복에 있어서 포는 홑으로, 저고리는 두겹 구성은 양일(陽一)·음이(陰二)의 수(數)를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의복을 이루는 외적 구성은 착용자의 사회적 역할인 지위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봉제의 내적 구성은 당시 사람들이 지닌 사상을 형상화하여 상징하고 있으니, 의복자체가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세계(社會的 世界)와 그 정신세계(精神世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복을 이루는 외적 구성은 의복의 사회적 역할인 지위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봉제의 내적 구성은 당시 사람들이 지닌 사상을 형상화하여 상징하고 있으니, 의복자체가 그 사람의 개

인적이고 사회적인 세계(社會的 世界)와 그 정신세계(精神世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는 착용역할에 따라 의복의 종류를 달리하여 의복착용의 격식이 갖추어지는 시대이며, 일반복식의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발달과 계층변화에 의한 의복의 변화는 조선중기가 일반복식의 발달기인 동시에 이전의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교차시기임을 의미한다. 즉 조선중기는 의복의 구조와 구성에서 한국의 고유복 형성하는 시기로서 복식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실물을 통한 조선중기 의복 구성 이해는 오늘날 한복의 색채(색채)와 형태(형태) 및 미적 본질(美的本質)을 재조명하여 토착화(土着化)된 새로운 한복(韓服)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참고 문헌

- 國朝五禮儀, 奎章閣 影印本.
- 申義慶, 喪禮備要,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1258
- 金集, 疑禮問解續,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5731, 1646
- 金長生, 疑禮問解,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4117, 1646
- 家禮考證, 券之2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717 1624(인조4)
- 家禮源流,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1633
- 家禮附贅,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5569, 1628
- 四禮訓蒙,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3609, 1674
- 家禮輯覽,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6913, 1685
-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사회과학원 출판사, 이조실록, 여강출판사, 1991.

- 張仁經, 奎章閣韓國本禮書研究, 梨花女子大學校圖書款學科 碩士學位論文, 1983.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臧書目錄, 1984.
- 金東旭·劉頌玉,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第80號,  
廣州李氏衣服一括遺物, 1980.,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 82 號,  
忠北清原郡求禮孫氏墓出土遺物, 1980.,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 83 號,  
忠北清原郡傅朴將軍墓出土遺物, 1980.,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 84 號,  
忠北槐山郡金緯墓出土遺物, 1980.
- 金東旭·李樹鳳, 壬亂前後出土服飾 및 喪禮,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查報告書 第 8 冊, 1983.
- 金東旭·高福男,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의 研究, 服飾 第 2 號, 1978.,  
重要民俗資料 調查報告書 第 63 號, 文化財管理局, 1978.,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 75 號,  
重要民俗資料(服飾), 文化財管理局, 1979.
- 金東旭·金榮子·張仁又,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攷,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查報告 第20冊, 1983.,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攷,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查報告 第 22 冊, 1988.
- 柳喜卿·金美子·姜淳弟,  
安東金氏 墓出發掘調查報告書, 溫陽民俗博物館, 1989.
- 柳喜卿·金美子, 晋州河氏 墓出土文獻과 服飾調查報告書, 건들마우박물관, 1991.
- 金明淑, 17世紀朝鮮時代 服飾 一例(1), 文化財 第 19 號, 1986,  
洪禹協 墓 出土 17世紀 服飾論攷, 第 37 冊, 1993.
- 高富子,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 遺物 小考, 檀國大學校 民俗博物館, 1993.
- 沈富子 全惠淑, 文益新墓의 出土服飾, 服飾 第 4號.
- 高麗大學校 博物館 所藏品 目錄, 高麗大學校 博物館, 1982.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6.
- 朝鮮史研究會 譯音, 韓國의 歷史, 한울, 1985.
-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陽堂, 1947.
-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亞世亞文化社, 1979.
- 朴京子·林純暎, 韓國衣裳構成, 修學社 1990.
- 李順媛·白英子, 韓國服飾, 韓國放送通信大學, 1987.
- 金粉玉, 韓服構成學, 修學社, 1988.
- 韓國經濟史學會, 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86.
- 李泰鎮, 朝鮮儒教社會史論, 知識產業社, 1990.
- 許捲洙, 朝鮮後期南人과 西人의 學問的 對立, 法仁文化社, 1993.
- 李萬烈, 韓國史年表, 역민사, 1993.
-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1991.
- 韓우림·이태진, 史料로 본 한국문화사, 一志社, 1993.
- 韓國考古學研究會, 韓國考古學報 13, 서울大學校出版部, 1982.
- 韓國考古學研究會, 韓國考古學報 14,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 高英津, 15·16世紀末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韓國史論 21, 1989.,  
16세기 말 四禮書의 成立과 禮學의 發達, 韓國文化 12,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991.,  
16세기 후반 喪祭禮書의 發展과 그 意義, 奎章閣 14, 1991.
- 黃元九, 朱子家禮의 形成過程, 人文科學, 1981.
- 李春桂, 일본의 고대복식, 최재석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총 “한국의 사회와 역사”, 1991.,  
日本 衣服令과 正倉院 服飾, 東國論叢

- 第 32 號, 1993.
- 高福男, 韓服의 치수에 관한 연구, 服飾 創刊號, 1977, 韓國赤古里的 類型分析, 文化財 第 15 號, 1982., 朝鮮中期的 服飾變遷에 대한 要因分析, 속대논문집 25, 1984,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에 대한 分析研究, 世宗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 김미자, 직령에 관한 연구,, 두루마기(周衣)의 變遷에 關한 研究, 1980, 한국의 圓領과 일본의 圓領의 比較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直領에 關한 研究, 服飾 第 5 號.
  - 유송옥,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 동서복식 교 류면에서, 홍익대학교대학원, 1980., 高句麗 服飾 研究, 成均館大學校 論文 集, 第 28 集, 1980.
  - 朴性實, 누비小考,복식14, 1990, 殯殿都監儀軌에 나타난 服飾研究(1),服飾 第 9號, 1991.,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廣州郡突馬面 巧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檀國大學校 民俗博物館, 1993.
  - 李善幸, 朝鮮時代 儒敎思想과 儀禮服研究, 世宗 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0.
  - 孫貞圭, 朝鮮裁縫參考書, 京城 活文社, 大正45
  - 金東旭, 順天金氏 王亂前 衣服 및 簡札, 忠北大學 校 博物館 文化財管理局, 1979.
  - 李京子, 女子 赤古里 小考,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0.
  - 金惠眞, 한국여성 棼의류에 關한 研究, 성신여 자대학교 대학원, 1988.
  - 李眞璟, 장옷(長衣)에 關한 研究, 誠信女子大學 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 趙槿姬, 道袍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1985.
  - 방현미, 도포에 關한 高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윤미화, 창의를류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1981.
  - 白錦鉉, 옷깃과 옷설의 形態變化에 對한 研究, 服飾 第 6 號.
  - 이해영, 한국직령교입식포에 關한연구, 이화여 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8.
  - 김문자, 우리나라 袍의 類型 및 源流에 關한 研 究, 服飾 第 15 號.
  - 金文子, 朝鮮時代 저고리 깃에 對한 研究, 服飾 第 5 號.
  - 安明淑, 文殊寺 遺物袍와 織物類에 關한연구, 대 한가정학회지, 제24권, 1호, 1986
  - 金惠淑, 禮記에 나타난 喪禮文化研究, 복식16호, 1991.
  - 이은주, 철릭의 명칭에 關한 研究, 한국의류학회 지, 13권 3호, 1988, 철릭에 對한 社會학적 分析, 한국의류 학회지, 13권 4호, 1989.
  - 金正子, 帖裏考, 복식8호 1984.
  - 金贊珠, 철릭에 關한 服飾史的 研究, 서울대학 교, 碩士學位論文, 1980.
  - 趙今衍, 帖裏에 關한 考察,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 韓國文化財保護協會, 韓國의 服飾, 1982.
  - 韓國文化象徵辭典, 東亞出版社, 1992.

## ABSTRACT

### A Study on the Daily Clothes of the Middl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Based on the Excavated Costume—

Most of the recently-exhumed excavated costume(出土服飾) is the garment for the dead(殮襲衣), which is one of the costume of funeral rite(喪禮服飾). Investigating the birth and death years of the dead reveals that the excavated costume was mostly us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 study on the change of clothes includes two aspects; one is manifestation of the structure of clothes and the other is elucidation of the constructure of clothes through examining constructure components and construction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stume of the middl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in these aspects by examining the excavated Costume of 16th and 17th centuries and Ryesu. This study also aims to assist to comprehend the constructure of costume by comparing actual excavated clothes with chronological standards through inspecting diverse clothes in a specified period. The construction of the clothes of the middl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clothes, and the principle of sewing is set up on the bases of mentality(思想) and body(身體觀). That is, the Costume stands for the individual, social, and mental world of the people at that time since the external construction of the clothes represents their social rank and the internal construction of sewing symbolizes their mentality.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clothes of the middl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coexistence of diverse sorts and patterns, indicates a change in clothes. This suggests that the clothes of a particular class last and change in role corresponding to formation, lasting, and extinction of the class. Thus, diversity of the sort of general costume, advancement of pattern, and the change of clothes depending on the change of the class signify that the middl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is a period in which the general costume is actively developed and a turning point for transforming the traditional clothes into new ones. In other words, the middl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is characterized as an era during which a costume native to Korea is formed with respect to the structure and constructure of clothes.